

담장너머

한양대학교 김아라

힘들게 담장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다 보면 그 새로움과 안도감 등에 의해 안주하게 된다. 하지만 그 세계를 다 돌아보고 즐긴 후 또 다른 담장을 발견하게 되면 그제서야 새 담장을 넘을 궁리를 한다. 담장을 넘자마자 그 다음 담장을 넘을 생각을 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. 그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운 계획을 토대로 남들보다 더 빨리, 더 쉽게 넘을 수 있다.

나는 지금 대학생살이라는 인생의 2막을 정리하고 직장생활이라는 3막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막바지 졸업예정자이다. 대학 입학 전 수능이라는 담장을 넘을 때에는 인생에 담장이란 그거 하나 뿐이라고 생각했다. 그래서 그 높은 담장을 넘었을 때는 대학생살을 즐기고 또 즐겼다. 그리고 지금, 나는 새로운, 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다. 어떻게 넘어야 할지,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지,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뒤쫓기듯 담장 넘을 방법을 찾고 있다.

차세대건설리더아카데미는 그 방법 중 하나였다. 건설업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, 실무에 가까운 경험을 쌓고자 지원했고, 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준의 교육과,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. 교육을 들으면서, 나는 이 아카데미가 취직이라는 담장 끝에 닿게 해주는 좋은 발판이 된 것 같았다. 하지만, 교육이 끝나가는 지금 이 교육은 나에게 발판 같은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, 앞으로의 내가 마주할 담장들의 존재를 깨닫게도 해주었다

차세대건설리더아카데미의 교육은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 의해 진행된다. 현업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,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,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조언해주셨다.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취업이라는 담장 너머에는 또 다른 담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다. 취업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일이며, 그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,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,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. 특히 한미글로벌에는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은 뒤 CM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. 영종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소방을 교육해 주셨던 윤진철 차장님께서 10년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소방기사라는 새로운 길을 가면서 왜 진작에, 왜 더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했다. 그건 지금 안주하고 있는 세계에 정신이 팔려 내가 곧 마주하게 될, 인생의 다음 막으로 넘어가게 할 담장을 모르고 살기 때문일 것이다.

지금까지의 나는 대학 입시 직전 옛날의 나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. 나는 지금 취직이라는 눈앞의 담장과 직장생활이라는 작은 세계에 갇혀 더 멀리, 더 나아간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. 이제는 인생의 3막이 아닌, 나의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써나갈 준비가 된 것 같다. 이 에세이를 통해 5주 동안 우리에게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큰 깨달음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.